

선조 16년(1583) '尼湯介의 亂'과 조선의 대응*

윤 호 량**

1. 머리말
2. 16세기 후반 함경도 북도 지역의 군사상황과 제승방략
3. '尼湯介의 亂'의 발발 및 경과
4. 조선의 대응책
5. 맺음말

1. 머리말

“한 나라의 군사력은 국가를 유지하고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해당 국가의 흥망성쇠는 군사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진행된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으로 점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전쟁이 있어 왔고 조선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조선은 건국 이래 북방의 여진과 남방의 왜구의 침입을 억제하고 방어하는 것을 國防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다.¹⁾ 특히 북방의 여진 세력 중 일부는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조선과

* 본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 보완한 글임.

** 육군 제6포병여단, 대위

1) 조선시대의 軍은 국왕을 호위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中央軍과 실질

인접해 있거나 조선의 국경 내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조선에게 늘 위협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조선에 위협적이던 대부분의 여진은 수렵생활에서 농경생활로 생활 형태가 변화되면서 조선에 점차 우호적인 세력으로 변해갔고, 조선에서는 이러한 여진을 藩胡로 칭하였다.²⁾ 번호는 조선의 城底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였고 조선의 백성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다. 또한, 수령이나 邊將의 세력권 내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지시에 복종하고 항시 조선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적대적인 여진 세력이 조선을 공격할 때 번호는 이들의 침입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직접 군사를 동원하여 구원해주는 등 조선의 국방에 완충역할을 담당하였다.³⁾

따라서 조선에서는 번호를 邊方대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자 이들에게 관직을 주거나 토지와 식량을 지급하고, 조선의 여자와 결혼을 허용해 주는

적인 전투를 담당하며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는 地方軍으로 나뉘어 있었다(오종록, 『朝鮮初期 兩界의 軍事制度和 國防體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2쪽 ; 김우철, 『朝鮮後期 地方軍制史』, 경인문화사, 2000, 10쪽).

- 2) 藩胡는 울타리 '藩', 오랑캐 '胡'로 '울타리가 되는 오랑캐'로서 예전부터 조선의 北邊 방어에 대한 중요한 국방 대책에서 비롯된 호칭이다(송우혜, 『조선 선조조의 니탕개란 연구』, 『역사비평』 72, 역사비평사, 2005, 302쪽).

만나라에서는 여진을 구분할 때 이들의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압록강과 요동지방 동쪽의 建州女眞, 송화강 상류와 요동지방 북쪽의 海西女眞, 송화강 하류와 흑룡강 일대의 野人女眞으로 구분하였다(김한규, 『천하국가 -전통시대 동아시아 세계질서-』, 소나무, 2005, 537~538쪽). 반면에 조선에서는 여진의 생활 형태와 씨족을 기준으로 하여 농경생활을 위주로 하며 요동지방과 압록강·두만강 일대에 거주하는 오랑캐(兀良哈)와 수렵·어로생활을 하며 만주의 서북 내륙지방이나 동북 산악지대에 거주하는 우디캐(兀狄哈)로 구분하였다(김구진, 『朝鮮前期 對女眞關係와 女眞社會의 實態』, 『동양학』 14,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84).

시간이 지날수록 두만강 하구에 거주하던 일부 우디캐를 제외한 대부분의 여진이 함경도 북도 지역의 두만강변으로 이주하면서 이들의 생활 형태는 농경생활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점차 다른 씨족이나 부족이 동일 지역 내에 함께 거주하는 생활양식으로 바뀌어갔고 농업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선과 명에서 납치한 노예들까지 뒤섞이면서 종래의 씨족 공동체 특성은 사라져갔다. 이에 조선에서는 기존에 여진을 구분하던 생활 형태와 씨족이라는 기준이 점차 약화되었으며 16세기에는 두만강변에 살고 있던 여진을 일반적으로 藩胡로 인식하였다(김구진, 『조선전기 여진족의 2대 종족 -오랑캐(兀良哈)와 우디캐(兀狄哈)-』, 『백산학보』 68, 백산학회, 2003, 293~306쪽).

- 3) 『宣祖修正實錄』卷17, 16年 2月 甲申 : “北道胡人 居江外接近邊堡 交貨納貢者爲藩胡 山北諸胡 未嘗親附者 謂之深處胡 亦時時款邊 深處胡欲入邊 藩人輒告之 或遮防調掠.”

등의 懷柔策을 실시하였다.⁴⁾ 하지만, 16세기 후반에 이르러 이러한 조선의 慰撫政策은 점차 그 기능을 상실해갔으며, 宣祖 16년(1583)에는 변호에 의한 대규모 외침인 '尼湯介의 亂'이 발발하였다.⁵⁾

'이탕개의 난'은 함경도 북도 지역의 두만강변에 거주하던 변호에 의해 일어난 邊境지역 전투로서 조선전기에 백여 회가 넘는 여진의 침입보다 규모가 컸으며⁶⁾ 전투기간도 7개월 정도 진행되었다. 즉, 國朝 이래 壬辰倭亂이 발발하기 전까지 조선에서 발발하였던 수많은 외침 가운데 전투규모나 기간 등을 놓고 볼 때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탕개의 난'은 지금까지 학계의 연구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기존에 조선전기의 군사제도에 여진관계를 다룬 연구에서 나타나는 '이탕개의 난'에 대한 서술은 조선과 여진이 벌인 전투⁷⁾ 혹은 군사지휘체계 변

4) 최호근, 「조선중기 對女眞관계의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9~15쪽.

5) 현재 학계에서는 선조 16년(1583)에 발생한 변호의 침입을 '이탕개의 난'으로 부르고 있다. 이탕개는 두만강 부근에 거주하던 변호로서 한문으로는 '尼湯介(니탕개)'라고 쓰지만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언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도 기존의 연구경향을 적용하여 '이탕개'로 사용하겠다.

6) 조선은 後金의 건국(1616) 이전까지 여진으로부터 100여 회가 넘는 침입을 받았지만 '이탕개의 난'을 제외하면 그 침입 규모는 최대 3천여 騎를 넘지 않았다(유봉영, 「王朝實錄에 나타난 李朝前期의 野人」, 『백산학보』 14, 백산학회, 1973, 95~111쪽). 하지만, '이탕개의 난'에는 최대 3만여 騎가 조선을 침입하였는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3만여 騎라는 변호의 침입 규모이다.

당시 조선에서는 이들을 모두 변호로 인식하였지만(『宣祖實錄』卷17, 16年 2月 癸巳) 필자는 변호를 포함한 일부 여진 세력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지하다시피 명나라가 동요하기 시작하던 16세기 말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여진족이 興起하면서 각 종족 간의 세력 확장에 따라 새로운 국제정세가 전개되고 있던 시기였다. 또한, 1577년부터 격렬해진 여진의 세력다툼은 1583년에 접어들면서 누르하치(1559~1626)의 蜂起로 본격화되었다(『清太祖武皇帝實錄』卷1 : “各部蜂起 皆稱王爭長 互相戰殺 甚且骨肉相殘 強凌弱衆暴寡.”). 이러한 와중에 세력다툼에서 패한 일부 여진족이 흩어지면서 식량과 거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으로 남하하였을 것이고, 변호들은 이러한 여진세력과 합세하여 조선을 침입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세종대와 성종대에도 여진은 자신들의 내부 문제로 조선을 침입하였고(오종록, 「조선 초기의 국방정책-양계(陽界)의 국방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3, 한국역사연구회, 1994 ; 김순남, 「조선 成宗代 兀狄哈에 대하여」, 『조선시대사학보』 49, 조선시대사학회, 2009), 함경도 북도 지역의 두만강변에 거주하던 변호의 규모가 8,699戶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3만여 騎의 규모가 조선을 침입하는 데에는 변호의 세력만으로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7) 육군본부, 『韓國軍制史-近世朝鮮前期篇-』, 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실, 1968, 372~376쪽.

동의 연구에 있어서 일례로 언급되었을 뿐이다.⁸⁾ 그리고 전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장수나 관료에 대한 연구⁹⁾와 전투 이후 여진에 대한 조선의 인식변화¹⁰⁾ 부분에서 소략하게 다루어져 왔다. 또한, 武科¹¹⁾, 武器¹²⁾, 軍糧¹³⁾ 부분에서 '이탕개의 난'이 이들 분야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즉 기존의 '이탕개의 난'에 대한 연구는 '亂'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기보다 다른 주제의 연구를 위한 하나의 보조적인 사건으로만 인식되어 왔던 것이다.

이처럼 '이탕개의 난'이 그동안 학계에서 주목받지 못한 이유는 3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이탕개의 난'은 함경도 전 지역에서 발생했던 전투가 아닌 慶源과 鐘城 지역에 제한되어 발발했던 局地戰이었고 변호는 노략

허선도, 「制勝方略 研究(上) -壬辰倭亂 直前 防衛體制의 實相-」, 『진단학보』 36, 진단학회, 1973.

강성문, 「朝鮮시대 女眞征伐에 관한 연구」, 『군사』 18,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1989.

8) 서태원, 「朝鮮前期 有事時 地方軍의 指揮體系 -중앙 군사지휘관의 파견과 관련하여-」, 『사학연구』 63, 한국사학회, 2001.

9) 김재갑, 「平山申氏武弁考 -申砮將軍을 中心으로-」, 『학예지』 4,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1995; 강신엽, 「조선중기 李鎰의 關防정책」, 『학예지』 5,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1997; 송우혜, 위의 논문, 2005; 이원명, 「조선중기 鹿屯島 확보와 北兵使 李鎰에 관한 고찰 -《壯襄公全書》(1893)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83, 백산학회, 2009.

특히 송우혜의 논문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탕개의 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亂 발생 당시 兵曹判書를 담당하던 李珥, 武功을 세운 申砮과 李舜臣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亂에 대한 연구는 개설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10) 최호균, 위의 논문, 1995, 9~25쪽.

이장희, 「朝鮮前期 事大隣關係와 國防政策」, 『군사』 34, 국방군사연구소, 1997.

이흥두, 「호란 이후 조선군의 전술 변화」, 『군사사연구총서』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11) 이흥렬, 「萬科設行의 政策史的 推移 -조선전기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18, 한국사학회, 1964.

심승구, 「朝鮮 宣祖代 武科及第者의 분석 -1583~1584년의 大量試取 榜目を 중심으로-」, 『역사학보』 144, 역사학회, 1994.

12) 이강철, 「勝字銃筒係의 實態小考 -現在遺物을 中心으로-」, 『학예지』 1,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1989.

허선도, 『朝鮮時代 火藥兵器史研究』, 일조각, 1994, 210~218쪽.

박재광, 「15~16세기 朝鮮의 火器 발달」, 『학예지』 9,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2002.

13) 유승주, 『朝鮮時代 鑛業史研究』,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3, 155~174쪽.

이장희, 「壬辰倭亂中 屯田經營에 대하여」, 『동양학』 26, 단국대학교 부설 동양학연구소, 1996.

질과 약탈에 집중하는 등 조선전기에 수차례 있어왔던 여진의 침입과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임진왜란 중 많은 史草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연구에서 인용한 사료가 『宣祖(修正)實錄』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투경과나 조선의 대책 등을 정확하게 검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셋째, 임진왜란의 초기 패전 원인을 조선의 전전준비 소홀에 두려는 고정관념으로 '이탕개의 난'이 발발했던 16세기 후반에는 커다란 외침이 없었으며 조정은 武備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기존의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이탕개의 난'을 조선전기에 발발했던 여진의 침입보다 심각하게 인식하여 함경도 북도 지역의 최고 군사지휘관인 威鏡北道兵馬節度使(從2品, 이하 北兵使로 약칭)보다 품계가 높은 都巡察使(正2品)를 京將으로 파견하여 함경도 북도 지역의 군사지휘체계에 변화를 주었다.¹⁴⁾ 그리고 병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많은 수의 軍官을 선발하였다. 또한, 군량을 마련하기 위해 納粟한 庶孽들을 許通시켜 주었으며 騎兵이 자비로 준비해야 되는 卜馬를 혁파시켜 주었다.

또한, 난이 종료된 이후 조선의 국방체제 및 문무관리의 등용 부분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¹⁵⁾ 즉, '이탕개의 난'은 전투가 종료된 이후 조선사회의 여러 분야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투경과를 통해 함경도 북도 지역에서 행해진 制勝方略이 실전에 어떻게 적

14) 조선 건국 이후 '이탕개의 난'이 발발하기 이전까지 함경도 지역에 여진의 침입과 관련하여 北兵使보다 품계가 높은 京將을 파견한 사례는 없었다(육군본부, 위의 책, 1968, 323 쪽). 다만, 조선전기 '李澄玉의 亂(1453)'때 首陽大君이 中外兵馬都統使로 임명되고, '李施愛의 亂(1467)'때 世祖의 조카 龜城君 李浚이 咸吉江原平安黃海四道兵馬都摠使로 임명된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는 북방 지역의 군사제도가 制勝方略으로 정착되어 시행되기에 다소 이른 시기라 생각되며 『經國大典』에 각 지방 군사지휘관의 품계와 명칭이 규정되기 前이어서 이들의 정확한 품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본 논문에서는 여진의 침입 부분으로 한정하여 北兵使보다 품계가 높은 장수가 처음으로 파견된 사례를 '이탕개의 난'으로 규정짓도록 하겠다.

15) 『鶴峯先生文集』 卷3 「請停築城仍陳時弊劄」: “臣等又竊伏念自癸未變生之後 國家收用武臣驟加超擢 而名位太濫 勸懲無章 ... 夫嶺湖二南 實根本之地 人材之府 而劇邑大州 亦付諸武士 勢將一時崩潰 而學校無沒 絃誦寂寥.”

용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은¹⁶⁾ ‘이탕개의 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대변해준다 하겠다.

이에 이 논문은 그동안 다른 연구의 보조적인 사건으로만 인식되어 오던 ‘이탕개의 난’ 자체에 주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투를 재구성해보고 조선이 취했던 대응책을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조선의 대응책은 임진왜란 시에도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던 정책으로 당시 중앙 조정에서 인식하던 ‘이탕개의 난’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또한, 전쟁사적 의미에서 볼 때 군사의 많고 적음보다 군사전략이나 주변의 地形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勝敗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함경도 북도 지역의 지형적인 특징과 이 지역에서 조선전기부터 실시되어 오던 制勝方略을 살펴봄으로써 조선이 여진의 침입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아보겠다. 3장에서는 ‘이탕개의 난’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4장에서는 당시 조선이 실시했던 대응책을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이러한 서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는 『宣祖實錄』과 『宣祖修正實錄』을 주로 이용하고 연대기자료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制勝方略』¹⁷⁾과 『燃藜室記述』, 『大東野乘』¹⁸⁾을 살펴보겠다.

그 외에 개인문집으로는 당시 軍務의 총책임을 담당했던 兵曹判書 李珥

16) 기존의 制勝方略에 대한 연구는 임진왜란 초기 패전과 관련지어 남방지역에서 행해지던 제승방략 위주로 진행되었다(허선도 「制勝方略 研究(下) -壬辰倭亂 直前 防衛體制의 實相-」, 『진단학보』 37, 진단학회, 1974 ; 허선도, 「鎭管體制 復舊論 研究 -柳龍의 軍政改革의 基本施策-, 『논문집(인문과학편)』 5, 국민대학교, 1974). 하지만, 본 논문에서 언급하려는 制勝方略은 북방지역에서 시행되던 군사전략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장에서 서술하겠다.

17) 『制勝方略』은 함경도 북도 지역에서 행해지던 군사전략을 기술한 자료로서, 2卷 1冊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승방략』은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소장번호 : 奎貴132)에 소장되어 있으며,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1999년 國譯하였다. 저자는 金宗瑞(1383~1453)이고 선조 20년(1587) 北兵使 李鎰(1538~1601)이 증보했으며, 顯宗 11년(1670) 威鏡北道兵馬評事 李選에 의해 간행되었다.

18) 특히 『大東野乘』 중에서 ‘이탕개의 난’이 발발했던 1583년에 국내에서 발생했던 사건이나 정치상황, 관료들의 人事에 관련된 기사가 상당 부분 수록되어 있는 「癸未記事」와 「癸甲日錄」은 위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자료이다.

(1536~1584)의 『栗谷全書』와 實戰에서 군사들을 지휘하고 전투의 총책임을 담당했던 北兵使 李濟臣(1536~1583)의 『淸江集』, 그리고 군사행정과 실무직책을 역임하며 군사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던 柳成龍(1542~1607)의¹⁹⁾ 『西厓文集』 등을 참고하겠다.

2. 16세기 후반 함경도 북도 지역의 군사상황과 제승방략

조선은 건국 이후 지속적인 북진정책을 추진하여 세종 31년(1449) 富寧을 마지막으로 六鎭개척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함경도의 주요 지점에 鎭堡를 설치하여 함경도 전 지역을 조선의 영토로 확보하였다. 두만강변을 따라 위치한 함경도 북도 지역의 29개 진보는 지리적으로 두만강의 폭이 좁아지거나 수심이 얕은 지역, 그리고 강의 지형이 조선 쪽으로 굽어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여진이 침입하기 쉬운 지역 등 두만강의 지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설치되었다.²⁰⁾

함경도 최북단에 설치되어 있는 이들 진보는 함경산맥과 마천령산맥으로 인해 도로의 발달이 미흡하여 監營의 소재지인 威興이나 북병사가 위치하는 鏡城과 명령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단점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각 진보의 배열이 두만강변을 따라 나열되어 있는 列鎭형태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병력이동도 쉽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선군의 규모에 비해 방어를 담당하는 지역이 넓었기 때문에 유사시 어느 한 지역

19) 유성룡은 '이탕개의 난'이 발발하기 전에 兵曹佐郎(1570)을 거치면서 軍政에 대한 이론을 익혔고 尙州牧使(兵馬僉節制使, 1580) 재직시에는 군사들을 직접 지휘하면서 훈련을 시켰으며, 都承旨(1582)로 재직할 때에는 위의 경험을 바탕으로 宣祖와 함께 군사정책을 논의하였다(오종록, 「서애 류성룡의 군사정책과 사상」, 『류성룡의 학술과 경륜』, 태학사, 2008, 185~191쪽).

20) 강성문, 「朝鮮初期 六鎭 開拓의 國防史的 意義」, 『군사』 4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107~123쪽 ; 강석화, 「조선후기 함경도 육진지역의 방어체계」, 『한국문화』 36,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5, 299~305쪽.

을 방어거점으로 선정하여 병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끈란하게 하였다.

하지만, 조선은 이렇게 불리한 지형적인 여건 속에서도 건국 이후 수차례 발생했던 여진의 침입을 방어하고 격퇴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는 외제적으로 조선전기까지 여진의 생활이 수렵·어로 생활을 주로 하는 씨족사회를 구성하였기에 조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었고, 내제적으로 함경도 북도 지역에 설치된 방어시설을 적절히 이용하고 이 지역의 군사전략인 制勝方略에 맞추어 병력을 운영했기 때문이었다.

조선전기에 여진은 수십 명에서 많게는 3,000여騎의 규모로 조선을 침입하였지만, 이들의 침입규모에 비해 조선의 피해는 미미했다.²¹⁾ 이는 조선을 침입한 여진의 목적이 조선의 식량이나 가축의 약탈 또는 자신들에 비해 우수한 농업기술을 가진 조선의 백성을 납치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여진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본거지로 돌아갔으며 이들의 행동이 전투로까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의 피해는 크지 않았던 것이다.

함경도 북도 지역의 조선군 규모는 土兵과 赴防軍을 합쳐 4,960명으로 인접한 번호의 규모인 8,699戶에 비해 매우 적었다.²²⁾ 이러한 병력의 차이는 기동력을 위주로 하는 여진의 침입에 조선이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守城戰을 계획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조선은 건국 초부터 여진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주요 지역에 長城을 축조하였다.²³⁾ 이렇게 조선이 築城을 실시한 이유는 城을 토대로 守城戰과 遲延戰을 의도하고 이를 통해 적의 兵站線을 연장시켜 적이 필요로 하거나 보충이 필요한 물자나 병력 등을 제때에 받을 수 없게 하여 지치게 하거나 적의 긴장상태가 이완된 틈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이른바 ‘先守備後攻擊’작전을 실시하기 위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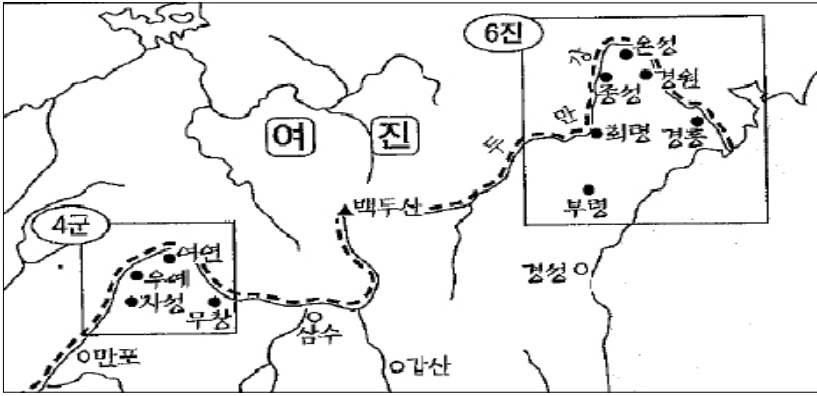
21) 유봉영, 위의 논문, 1973, 95~101쪽.

22) 번호가 1戶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번호와 조선군의 규모를 동등한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建州女眞이 1戶당 6~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김구진, 「吾音會의 韓梁里 女眞에 對한 研究」, 『사총』 17, 고대사학회, 1973, 118~121쪽) 조선군과 번호는 그 규모의 차이가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23) 육군본부, 위의 책, 1968, 302~306쪽.

그렇다면 조선이 여진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성곽 이외에 보유하고 있던 방어시설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을까? 아래의 <그림 1>과 <표 1>은 함경도 북도 지역의 6진의 위치와 6진 지역에 설치된 방어시설 현황이다.

<그림 1> 六鎭의 위치



*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권으로 읽는 역대병요·동국전란사』, 2003, 274쪽.

<표 1> 六鎭의 방어시설

巨鎭	성둘레(尺)	女塙(개)	甕城(개)	烽燧(개)	守護處(개)	侯望(개)	海望(개)
慶興鎭	14,396	728	17	9	24	1	·
慶源鎭	22,855	912	14	11	24	1	2
稔城鎭	14,520	1,174	12	21	17	·	2
鐘城鎭	18,278	1,005	15	16	12	·	2
會寧鎭	20,538	892	14	16	13	·	2
富寧鎭	10,715	674	10	9	4	·	3
합 계	101,302	5,385	82	82	94	2	11

* 출처 : 『制勝方略』 卷1, 「列鎭防禦」; 각 巨鎭의 방어시설은 예하 諸鎭의 방어시설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임.

앞의 표를 살펴보면 함경도 북도 지역의 방어시설 역시 鎭堡와 마찬가지로 각 지역적 특징을 고려하여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鐘城鎭의 경우 城의 규모는 크지 않은데, 이는 종성진이 담당하는 방어정면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좁을 뿐만 아니라 北兵使의 行營이 종성 지역 내에 설치되었기 때문이었다. 行營은 氷水期(10월 초~익년 2월 말)에 두 만강이 결빙되어 여진족이 빙판을 이용하여 강을 건너 조선에 쉽게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北兵營(慶城)에 위치해 있던 북병사를 비롯한 虞侯, 評事, 軍官 등이 이를 방어하고자 한시적으로 위치하는 장소이다. 따라서 유사시 북병사가 군사들과 함께 해당 지역을 신속히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종성진 지역은 방어중점이 거진이 아닌 행영에 있었고, 종성진 지역의 城은 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함경도 최북단에 위치한 穩城鎭은 다른 지역보다 지형이 험준하여 도로가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았다.²⁴⁾ 그리고 조선에 적대적인 여진과 거리가 가장 가까워 이들의 위협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²⁵⁾ 따라서 유사시 인접 진보에 신속히 연락을 취하는 방법으로 다른 지역보다 많은 烽燧가 설치되었다.

조정이 방어시설을 설치한 목적은 외침이 일어나기 전 敵情을 살피거나 경계하고, 외침이 발발한 이후 적의 공격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것이었다. 물론 각각의 개별 방어시설이 어느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 설치된 것은 아니었으나 守護處와 候望, 海望은 외침이 발발하기 전과, 그리고 女牆과 甕城 등은 외침이 발발한 이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수호처는 守護將이 이른 새벽에 군사들과 함께 두만강변을 순찰하는 장소이고, 후망과 해망은 각각 육지와 바다로 침입하는 여진을 고정된 지역에서 관측하는 장소를 말한다.

특히 함경도 북도 지역에 외침이 발발했을 때 수호장이 土兵과 인근의

24) 강영철, 「朝鮮初期의 軍事道路 -北方 兩地帶의 境遇에 대한 試考-, 『한국사론』 7, 국사편찬위원회, 1980, 375~377쪽.

25) 김순남, 「조선 成宗代 兀狄哈에 대하여, 『조선시대사학보』 49, 조선시대사학회, 2009, 42쪽.

농민들을 동원하여 즉시 전투를 치러야 하는 규칙으로²⁶⁾ 보아 후망이나 해망보다는 수호처가 여진의 감시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함경도 북도 지역의 넓은 방어정면과 이곳에 설치된 방어시설의 규모차이를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조선에서는 함경도 북도 지역의 험준하고 복잡한 지형과 이에 따라 설치된 진보나 방어시설 등을 갖춘 채 유사시 군사들이 사전에 약속된 지침에 따라 여진의 침입에 대응하였는데, 이것이 함경도 북도 지역에서 행해지던 制勝方略이다. 制勝方略은 남방 지역의 鎭管體制와는 달리²⁷⁾ 병력이 부족하여 自戰自守가 불가능한 지역적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된 함경도 북도 지역의 군사전략이다.

진관체제는 적의 공격을 받아 제1방어선(외침을 받은 지역)이 무너지더라도 제2, 제3의 방어선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면서 축차적인 방어가 가능하였지만, 제승방략은 병력의 부족으로 해당 지역의 군사뿐만 아니라 인접 진보나 후방 지역(鏡城·明川·吉州)의 군사까지 제1방어선에 동원하는 방법이였다. 특히 방어상 중요한 지역이 설정되지 않아 병력을 각 鎭堡에 분산 배치하여 병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하는데 제한이 발생하는 진관체제와 달리 제승방략은 제1방어선에 가용한 병력을 총동원하여 최초 전투에 전투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제승방략은 외침이 발발하면 分軍法에 따라 군사들을 재편성하여 전투를 실시하였다. 分軍法이란 글자 그대로 군사를 나누는 법으로서 6진 지역의 군사들을 조선전기 전투대형의 기본 편제인 5위 진법의 형태로 재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5위 진법의 형태는 북병사가 함경도 북도 전체를 지휘하는 大將이 되고 경흥진을 제외한 나머지 5개 巨鎭의 鎭將(府使)이 前·後·中·左·右衛의 衛將을 담당하였다.²⁸⁾ 또한, 諸鎭의 僉使나 萬戶

26) 『制勝方略』卷2, 「軍務29條」12條：“若有賊變 則農民等一處聚會 守護軍合力勦捕.”

27) 鎭管體制에 대해서는 민현구, 「鎭管體制的 確立과 朝鮮初期 地方軍制的 成立」,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한국연구원, 1983 참고.

28) 『制勝方略』卷2, 「6鎭大分軍」; 경흥진은 5위 진법에 편제되지 않고 외침이 발발하여도 守城戰을 실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경흥진 전방의 번호규모가 미미하여 외침이 상대적으

등이 衛의 하부조직인 部를 담당하는 部將이 되어 해당 부대의 군사들을 지휘하였다. 이외에도 후방 3읍의 군사지휘관에게도 일정한 임무를 부여하여²⁹⁾ 전방의 전투를 지원하게 하였다. 이러한 병력들의 재배치 및 재조직의 분군법은 적재적소에 군사들을 재배치시켜 적은 군사력으로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군사들의 경우에는 衛將이 판단하여 노약자나 힘이 약한 군사들은 성에 주둔하고 나머지 군사는 전투상황을 고려하여 遊軍(유격부대), 斥候(敵情 염탐) 임무를 담당하는 부대에 소속되었다.³⁰⁾ 이때 土兵은 전투를 지원하는 부대가 아닌 전투를 직접 실시하는 부대에 소속되었는데³¹⁾ 이는 토병의 전투력이 赴防軍보다 우월하고 부방군이 함경도의 지리나 기후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아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³²⁾

요컨대 조선은 건국 이후 여진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함경도 북도 지역에 주변의 지형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鎭堡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방어시설을 설치하였다. 또한, 넓은 방어정면에 비해 부족한 병력을 보유했던 함경도 북도 지역에서는 유사시 인접 지역과 후방 지역의 병력까지 총동원하는 제승방략의 분군법이 실시되었다. 이는 각 지역별 책임방어가 강화되고 군사지휘관이 임의로 다른 지역을 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과 대비되는 것으로³³⁾ 함경도 북도 지역에서는 남방 지역과 다른 군사전략이 실시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로 적을 뿐만 아니라 바다를 통하여 접근하는 번호를 방어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制勝方略』卷1, 「列鎭防禦」慶興鎭).

29) 『制勝方略』卷2, 「6鎭大分軍」: “一繼援將鏡城判官 二繼援將明川縣監 三繼援將吉州牧使 斬退將營軍官 左突擊將營軍官 右突擊將營軍官 輜重將輸城察訪.”

30) 『西厓先生文集』卷14, 「雜著」北邊獻策宜: “列鎭以其見在之卒 分爲三等 其中壯健驍勇可以馳突者爲上 無勇之軍次之 老弱爲下 中下之軍 專委於守城.”

31) 『制勝方略』卷2, 「禁令27條」1條: “堡將等所率土兵等乙 互相奪給爲在如中 將不知卒 卒不知將 上下離心 臨敵制變失宜 是置各其土兵以分軍 餘數乙移給不足處 使之各得其意事.”

32) 『中宗實錄』卷98, 37年 5月 辛丑: 『中宗實錄』卷99, 37年 10月 甲辰.

33) 장학근, 「制勝方略이 지닌 兵力運用의 價値 -壬辰倭亂 初期戰鬪를 中心으로-」, 『군사』 6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194~198쪽.

3. '尼湯介의 亂'의 발발 및 경과

함경도 북도 지역의 두만강 건너편에는 대규모의 여진이 거주하였고, 그 중에는 적대관계에 있는 일부 여진도 함께 존재하였기 때문에 국방 분야에서 이들의 침입을 억제하고 방어하는 것은 조선의 국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함경도 북도 지역의 군사지휘관이나 행정관에는 武才가 뛰어난 자를 임명하던 것이 관례였다.³⁴⁾ 하지만, 이들은 변방 방어나 爲民에 노력하기보다 백성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으며, 심지어 조선에 귀화한 여진에게까지도 이러한 행동을 하여 도리어 이들에게 공격받는 일도 종종 일어났다.³⁵⁾

한편, 조선 국방의 완충역할을 담당했던 藩胡의 역할은 여진의 생활형태가 농경생활로 변화되면서 조선에 적대적인 여진세력이 점차 감소하자 이들의 역할은 점차 줄어들었다. 또한, 여진의 주요 교섭 대상이 명나라로 확대되면서 조선과 번호를 이어주던 여진의 존재감은 상실되어 갔고 이 과정에서 조선과 번호의 관계는 점차 소홀해져 갔다.

16세기 말 여진은 각 부족간에 노예와 재산, 토지를 약탈하는 상황이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명군과 여진의 전투 과정에서 祖父와 아버지를 잃은 누르하치는 선조 16년(1583) 5월 父祖의 원수를 갚기 위해 직접 군사를 동원하여 여진의 세력다툼에 참여하였다.³⁶⁾ 하지만, 조선은 '成化 3年の 役(1467)' 이후 建州女眞과, 中宗代 이후 海西女眞 및 野人女眞과 조공관계가 거의 단절되었기 때문에³⁷⁾ 이러한 여진의 상황을 제대

34) 『大東野乘』卷56, 『松窩雜說』: “咸鏡一道 緣於野人 且有藩胡 朝廷自前以防戍爲重 南北兵使與北道大小守令 皆例以武夫差遣.”

35) 『宣祖實錄』卷17, 16年 2月 壬寅: “司憲府啓曰 梁思俊前爲富寧府使時 侵虐向化胡人 胡人不勝其苦 當其遞還時 遮道作亂 搜括行李 且裸辱其妾 激成邊患之罪大矣.”

36) 16세기 여진의 국내정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정흠, 『明末清初 누르하치의 對明關係와 그 性格』, 『역사교육논집』 18, 역사교육학회, 1993 참고.

37) 김구진, 「여진과의 관계」, 『한국사 22 -조선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국사편찬위원회, 2003, 348~351쪽.

로 파악할 수 없었다.

또한, 이 시기는 여진의 농경생활이 정착되었고, 15세기 중반에 비해 그들의 세력은 10배 이상 급성장하였다. 즉, 이들은 '부락' 수준을 넘어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했던 것이다.³⁸⁾ 그러던 중 일부 藩胡들이 주축이 되어 자신들에 대한 조선의 태도변화와 邊將들의 횡포, 여진 내부의 세력다툼, 그리고 무엇보다도 흉년으로 인한 식량부족 등을 이유로 주변 번호들을 선동하여 난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宣祖 16년(1583)에 일어난 '尼湯介의 亂'이다.

'이탕개의 난'이 발발하기 전 함경도 북도 지역에서는 인근 번호의 첩보로 적대적인 번호세력에 의한 군사적인 움직임이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³⁹⁾ 하지만, 北兵使 李濟臣은 당시 흉년으로 인해 이들의 움직임이 식량의 약탈 수준에서 종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阿山堡萬戶 유중영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通事와 土兵을 동원하여 적진으로 잠입했으나 오히려 사로잡히고 말았다.

慶源府使 김수는 자신의 군사들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군사들과 함께 阿山堡에서 번호와 전투를 벌였으나 패하면서 경원성으로 후퇴하였다.⁴⁰⁾ 김수의 敗戰을 통해 번호가 침입한 사실을 인지한 북병사는 우선적으로 예하 장수들에게 要害地를 방어하도록 지시하였지만 역부족이었다.

아산보 전투에서 승리한 번호는 기세를 몰아 1만여 騎의 규모로 1월 28일 慶源鎭 남동쪽에서 조선 지역으로 흘러 들어오는 後春江을 통해 경원진을 공격하였다. 하지만, 경원진 주변에는 산맥과 하천이 발달되어 있었고, 이러한 지형조건은 대규모의 병력이 주둔할 공간이 부족하게 하는 천연장

38)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하기 위해 번호세력을 흡수통일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부터이다(한성주, 「조선전기 두만강유역 '女眞·藩籬·藩胡'의 형성과 성격」, 『한국사학보』 41, 고려사학회, 2010, 179~186쪽).

39) 『淸江先生屬集』 卷5, 「行狀」: “癸未正月 藩胡來告 迂知介屯兵越邊 上下皆以爲渠輩結怨相報.”

40) 『宣祖修正實錄』 卷17, 16年 2月 甲申.

애물 역할을 하였다.

조선은 경원진의 지형적인 요인 이외에도 사전에 준비된 방어시설을 활용하여 변호의 침입을 막고자 하였다. 하지만, 변호가 경원성을 공격할 때 西門을 담당하고 있던 군사가 도망치면서 방어벽이 무너졌고 이후 변호들은 서문을 통해 성 내부로 침입하였다. 그리고 백성들을 죽이고 곡식과 식량을 약탈하며 감옥에 갇혀 있던 여진인을 풀어준 뒤 건너왔던 강을 통해 자신들의 본거지로 돌아갔다.⁴¹⁾

1월 29일 변호는 성 내부의 곡식을 약탈하기 위해 소와 말을 끌고 재차 경원진을 공격하였다. 하지만, 조선의 반격은 전날의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었다. 특히 아산보 전투에서 패전의 책임을 지고 있던 경원부사 김수는 홀로 적 40여 명을 베었고, 인접 진보인 安原堡에서 烽燧를 통해 외침 소식을 접한⁴²⁾ 穩城府使 申砮(1546~1592)과 예하 군사들이 救援軍으로 경원진 전투에 참여하여 변호를 후퇴시켰다. 조선군은 후퇴하는 변호를 추격하려 하였으나 변호와의 병력차이와 조선의 피해를 우려해 실시하지 않았다.

경원진 전투에서 후퇴한 변호는 전력을 정비하여 2월 9일 1만여 騎의 규모로 麻田洞을 통해 訓戎鎭을 공격하였다. 훈융진은 두만강의 돌출된 부위에 위치하여 좌우로 침입하는 변호의 공격에 측면이 노출되는 단점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훈융진은 지형상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여타 諸鎭에 비해 큰 城을 축조하고 방어시설을 많이 설치했으며 다수의 군사들을 보유했다.⁴³⁾ 그리고 조정에서도 훈융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訓戎鎭僉使를 다른 제진의 鎭將 품계(종4품·종6품)보다 높은 종3품에 중앙관직까지 겸직시켰다.⁴⁴⁾

변호는 衝橋를 이용하여 훈융진의 烟臺를 부수고, 연대 내부에 있는 각

41) 『制勝方略』 卷1, 「列鎭防禦」 慶源鎭.

42) 외침소식은 경원진과 가장 근접해 있는 南山烽燧에서 安原堡의 東臨烽燧로 전파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制勝方略』 卷1, 「列鎭防禦」 慶源鎭: “南山烽燧 南距七里 北應厚訓烽燧 南報安原 東臨烽燧.”).

43) 『制勝方略』 卷1, 「列鎭防禦」.

44) 『經國大典』 卷4, 「兵典」 外官職 永安道: “從三品 兵馬虞候一員 北道兵馬僉節制使十五員 甲山鎭 安邊鎭 ... 屬北道 訓戎鎭 潼關鎭 ... 則以京職兼.”

중 무기와 생활필수품에 불을 지르며 공격하였다. 하지만, 훈융진첨사 신상절을 비롯한 성 내부의 군사들은 弓矢를 사용하며 적침을 지연시키고 인접 鎭堡의 도움을 기다렸으며, 穩城鎭 예하의 黃柘坡堡에 주둔해 있던 鎭將과 柔遠僉使 이박 등이 적침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구원하였다.⁴⁵⁾ 구원군이 도착한 후 성 내부의 군사들은 성 밖으로 나와 구원군과 함께 변호를 내외로 둘러싸면서 공격했고 변호는 산맥을 타고 후퇴하였다. 기세를 잃은 변호는 공격방향을 바꾸어 乾原堡를 공격하였으나 특별한 전투 없이 종료되었고, 이후 변호의 침입은 한동안 소강상태에 있다가 5월에 鐘城鎭을 침입하면서 2차 전투가 재개되었다.

1차 전투는 會寧과 鐘城 지역에 거주하던 변호가 합세하였으나 실제 이들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慶源 지역 전방의 변호들이 주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2차 전투는 鐘城 부근의 변호 이외에도 會寧과 慶源 부근에 거주하던 변호까지 전투에 동원되면서 그 규모가 커졌다는 점이 1차 전투와 다른 점이었다.

변호는 전투를 하기 전에 조선의 정세를 염탐하기 위해 騎兵 10여 명을 종성진 남서쪽인 三峯洞 방향으로 침입시켰다. 이후 5월 5일 尼湯介와 栗甫里가 중심이 된 변호는 2만여 騎를 3개 부대로 나누어 종성진 북동쪽으로 발달되어 있는 산맥을 타고 조선을 공격하였다. 변호의 침입을 받은 北兵使 金禹瑞(1521~1590)는⁴⁶⁾ 선봉장인 兵馬虞候 장의현을 비롯한 군사들에게 두만강변의 요해지를 방어하도록 지시하였다. 하지만 두만강변에는 많은 요해지가 있었고 이는 조선군의 병력이 분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대규모의 변호는 조선군의 방어벽을 쉽게 무너뜨리고 침입에 성공하였다.

45) 훈융진에는 2개의 봉수(城上烽燧, 鎭項烽燧)가 있지만, 이는 모두 경원진 내에서 상황을 전파하는 봉수였다. 그러므로 黃柘坡堡에는 봉수가 아닌 도로를 통해서 적침의 소식이 전달되었을 것이다(『制勝方略』卷2, 「軍務29條」 9條 : “生變處 雖被圍城 從間道傳通爲良沙 隣鎭堡相救 亦可追邀擊事.”).

46) 1차 침입시 북병사였던 이계신은 전투를 총책임지는 主將, 경원부사와 경원판관의 사형을 집행하라는 선조의 標信을 지체시켰다는 이유로 파직되었고, 防禦使 金禹瑞가 북병사로 임명되었다. 김우서는 무과출신으로(1536년 급제) 濟州牧使(1563)와 京畿水使(1567)를 역임했으며, 선조 6년(1573)에는 북병사 직을 이미 수행한 경험이 있었다.

종성진은 두만강변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였고⁴⁷⁾ 특히 行營을 지나면 두만강 하구에 위치한 西水羅堡까지 직접 통하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⁴⁸⁾ 함경도 북도 전체가 위협에 빠질 수도 있는 지형적인 단점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종성진은 북쪽인 두만강에서 흘러들어오는 하천과 남서쪽에 산맥이 각각 발달되어 있었다. 또한, 인접 진보에 轉報하는 烽燧 이외에도 행영에 直報하는 봉수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유사시 행영으로부터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갖추고 있었다.

성 내부에 포위된 조선군은 勝字銃筒을 사용하며 지연전을 유도하며 이웃 진보인 永建堡의 구원군과 함께 번호를 공격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번호는 적극적인 공격 대신에 城 주변의 가축과 식량을 약탈하며 밤이 되면 자신들의 본거지로 돌아가곤 하였는데, 이들이 종성진 공격에 전력을 기울이지 못한 이유는 孝汀이라는 번호 때문이었다.

효정은 어떠한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이탕개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⁴⁹⁾ 그래서 이탕개 세력이 종성진을 공격할 때 효정은 이들의 본거지를 불태우기도 하였다. 자신의 본거지가 공격받은 것을 알게 된 이탕개는 종성진 공격에 집중할 수 없었고 복귀해야만 하였다. 이후에도 효정은 이탕개 예하의 부락을 공격하였으며, 효정의 공격으로 인해 이탕개 세력이 종성진을 효과적으로 공격하지 못하자 조정에서는 효정에게 상을 주기도 하였다.⁵⁰⁾

종성진 공격에 실패한 이탕개는 군사를 정비하여 5월 16일 潼關鎭을 공격하였다. 동관진은 전방의 번호들이 모두 30리 이내에 주둔해 있었고 외침 발발시 여진의 주침입로가 되는 柔遠鎭과 접경지대에 위치하였다.⁵¹⁾ 따라서 적이 동관진 지역으로 침입한다면 동관진 자체 병력만으로 방어하기가 힘든 만큼 인접 지역과 집중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요구되었다.⁵²⁾

47) 『輿地圖書』 「咸鏡道」咸鏡北道鐘城府邑誌.

48) 강영철, 위의 논문, 1980, 375~376쪽.

49) 『大東野乘』卷24, 「癸甲日錄」: “見備邊司密通 孝汀與尼湯介 自前相怨甚深.”

50) 『宣祖實錄』卷17, 16年 5月 戊戌.

51) 김순남, 「조선 燕山君代 여진의 동향과 대책」, 『한국사연구』 144, 한국사연구회, 2009, 137쪽.

52) 이러한 방어의 중요성으로 인해 동관진첨사 역시 종3품에 중앙관직을 겸직하였다(각주 44번 참고).

하지만, 의외로 동관진 전투는 바로 직전의 종성진 전투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投乙只라는 번호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비록 투을지는 孝汀과 마찬가지로 번호를 직접 공격한 것은 아니었지만, 번호의 침입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조선에 알려주었고⁵³⁾ 소식을 접한 조선은 적의 주요 침입로에 군사들을 배치하고 방비태세를 강화하여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1차 전투와 마찬가지로 2차 침입에서도 패한 이탕개는 조선에 타협안을 제시하였다. 즉 조선에서 자신을 盜賊으로 오해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전투를 벌이지 않겠다는 것이었다.⁵⁴⁾ 하지만, 都巡察使는 이탕개의 진의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당초 이탕개는 조선의 장수를 섬기며 번호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으며 조선의 聲教를 사모하여 3년상을 치루었기에 조선에서 孝子門까지 세워주었지만⁵⁵⁾ 이탕개는 조선을 배신하며 대규모의 번호를 대동한 채 조선을 침입했던 것이다. 이후에도 이탕개는 효정에 의해 자신의 예하 부락이 공격받고 번호를 지휘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자 급기야는 조선에 항복을 요청하였다.⁵⁶⁾ 하지만, 조선은 이탕개의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령에서 잡아 죽이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⁵⁷⁾

이에 이탕개는 태도를 바꾸어 7월 19일 防垣堡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방원보는 남동쪽으로 산맥이 발달되어 있고 동쪽으로는 두만강의 하천이 흐르고 있었다. 즉, 방원보의 동쪽 일부를 제외하고는 城 전체가 천연장애물로 둘러싸여 조선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이었다. 이렇게 지형상 불리한 상태에서 공격을 감행한 번호는 성 내부에서 勝字銃筒으로 대항하는

53) 『制勝方略』卷1, 「列鎮防禦」潼關鎮: “藩胡投乙只進告 ... 欲掠農民 夜入鷹谷云.”

54) 『大東野乘』卷24, 「癸甲日錄」: “會寧胡沙乙只告尼湯介率兵萬餘名 言曰 我非盜賊 而本國以爲賊 我欲一言能書營吏通事入送聽去 則我通事情後退戰矣.”

55) 『宣祖修正實錄』卷17, 16年 5月 壬午: “尼湯介 初服事邊帥 自以爲慕我聲教 服喪三年 朝廷命立孝子門於長城門外以旌之.”

56) 『大東野乘』卷24, 「癸甲日錄」: “巡察報 孝汀屠殺尼湯介麾下兩部落云 ... 尼湯介惟牛誘諸部落 今後勿侵朝鮮 只一部落不從云 ... 巡察報 賊胡一名獻馘 尼湯介苦乞納降云 繼報 鍾城賊胡三名獻馘 尼湯介乞降云.”

57) 『宣祖修正實錄』卷17, 16年 5月 壬午: “朝廷令會寧判官 僞受降 界上執而誅之 判官懼撓 潛爲之備 湯介將入幕 覺有異還走 不復來.”

조선군의 반격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후퇴하였다. 더구나 城과 주변의 산맥 및 하천 등으로 촘촘하게 밀집된 형태로 주둔한 번호는 다른 어떠한 전투보다 많은 피해를 입었다. 방원보 전투에서 패한 번호는 더 이상 조선을 침입하지 않았으며 선조 16년(1583) 정월부터 지속되어 오던 '이탕개의 난'은 종료되었다.

'尼湯介의 亂'은 6鎭의 일부인 慶源과 鐘城 일대에서 발발한 局地戰으로 조선전기에 수차례 발발했던 여진의 침입규모와는 달리 최대 3만여 騎의 규모가 동원되었다. 하지만 조선군의 병력은 巨鎭이 500여 명 내외, 諸鎭은 土兵과 赴防軍을 합쳐도 100~300명 정도로 소규모였다. 물론 남방 지역에서 선발되거나 징발된 병력이 전투에 동원되었지만 번호와 조선군의 수적 차이는 단순히 병력의 규모만을 놓고 볼 때 전투가 이루어지기에 역부족이었으며 특히 번호가 조선에 패배했다는 사실에 의구심이 든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번호가 조선을 침입한 의도와 함경도 북도 지역의 지형적인 조건을 생각해 보면 조선군이 번호의 침입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번호는 조선을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城 내부나 주변의 가축과 식량 그리고 백성들을 납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1차 침입이었던 경원진 전투에서 城 내외의 곡식을 가져가기 위해 牛馬를 끌고 온 사실은 이들의 침입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분명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리고 전투가 발발했던 경원과 종성 지역은 조선에게 불리한 지형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대체로 험준한 산맥과 두만강에서 흘러들어오는 하천 등 천연장애물의 이점을 갖추고 있었다. 게다가 번호의 침입을 받은 鎭堡의 城 둘레가 대부분 2,000~3,000尺 내외로서 주변의 지형과 성의 크기를 고려했을 때 대규모의 번호가 조선을 침입하여 주둔하기에는 공간적으로 많은 제약이 발생하였다.

더군다나 '이탕개의 난'이 종료된 이후 前 宗성부사 유영립은 번호의 규모와 아군의 피해규모에 대해 정확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鞫問 당

하였다.⁵⁸⁾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해서 판단해 보면 '이탕개의 난'과 관련된 사료에 기록되어 있는 수 만여 騎에 달하는 번호가 모두 조선군과 전투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즉, 정확한 비율은 알 수 없으나 당시 조선을 침입한 번호는 실제 조선군과 전투를 치른 일부 번호와 가축이나 식량의 약탈, 백성들의 납치 등에 주력한 대다수의 번호, 그리고 일부 여진이 합쳐진 규모라고 생각한다.

〈표 2〉 '尼湯介의 亂' 전투일지⁵⁹⁾

전투 날짜	침입 지역	침입 규모	조선군 규모	특징
1월 28일 前	아산보	·	121명	藩胡와 최초 전투
1월 28일	경원진	1만여 騎	435명	·
2월 9일	훈융진	1만여 騎	197명	·
2월 24일 前	건원보	·	100명	卓頭部落 격파
5월 5일	중성진	2만여 騎	709명	孝汀의 도움
5월 16일	동관진	3만여 騎	239명	投乙只의 첩보 제공
7월 19일	방원보	2만여 騎	141명	尼湯介의 마지막 공격

* 출처 : 『宣祖實錄』, 『宣祖修正實錄』, 『制勝方略』, 『大東野乘』, 『清江集』.

** 조선군 규모는 침입을 받은 지역의 土兵·赴防軍 규모와 인접 진보에서 동원된 救援軍을 더한 수치이다. 하지만 남방 지역에서 동원된 군사규모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포함시키지 않았다.

58) 『宣祖實錄』 卷17, 16年 11月 戊申.

59) 전투날짜는 『大東野乘』 내의 「癸未記事」와 「癸甲日錄」을 통해 추정하였고, 번호의 침입 지역과 침입 규모, 조선군의 규모 및 특징은 『宣祖實錄』과 『宣祖修正實錄』, 『制勝方略』을 활용하였다.

4. 조선의 대응책

'이탕개의 난'이 발발했을 때 조정과 변방의 장수들은 변호가 조선을 침입한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⁶⁰⁾ 조정에서는 변호들이 반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면서 난이 일어난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⁶¹⁾ 북병사는 변호들의 움직임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부하들이 변호에게 사로잡혀간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즉 중앙이나 지방 모두 敵情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阿山堡 전투의 패배 소식을 접한 이후 조정의 생각은 바뀌었으며 선조는 우선적으로 京將을 임명하여 군사와 함께 함경도로 파견하였다.⁶²⁾

즉, 파직되었던 오운과 박선을 助防將으로 임명하여 우선적으로 함경도로 보내고, 뒤이어 京畿監司 정언신을 都巡察使로, 도순찰사 이용을 南兵使로, 남병사 김우서를 防禦使로 각각 임명하여 전시지휘부를 구성하였다. 특히 도순찰사와 방어사의 파견은 유념해서 볼 부분이다. 기존에 조정에서는 함경도 북도 지역에 여진의 침입이 발생하여도 북병사를 정점으로 하는 군사지휘체계를 유지하면서 북병사의 지휘를 보조하는 조방장만을 파견하였었다.⁶³⁾ 하지만 '이탕개의 난'에서는 북병사보다 품계가 우위에 있는 都巡察使(正2品)와 북병사와 같은 품계인 防禦使(從2品)를 파견하였는데, 이는

60) 『西厓先生文集』 卷14, 「雜著」 北邊獻策宜 : “今北虜構怨之端 朝廷尙有未盡知者 往來胡人之逆順情僞 亦未能燭 故處置之策 多失其宜.”

61) 『宣祖實錄』 卷17, 16年 2月 癸巳 : “昨與卿等面議之時 或以爲藩胡決無背叛之勢 不過深處虜耳.”

62) 『宣祖實錄』 卷17, 16年 2月 庚寅 : 京將과 함께 함경도로 赴防한 군사의 규모에 대해서 『宣祖實錄』에는 80명이라고 서술되어 있는 반면에, 『宣祖修正實錄』과 『燃藜室記述』, 『大東野乘』 卷25, 「癸未記事」에는 8,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정확한 부방군의 규모 파악은 힘들다. 하지만 '이탕개의 난' 초기에 조정에서 전투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과 함경도 북도 지역 방어를 위해 실시된 5번의 무과시험에서 최대 선발 인원이 500명이라는 점, 그리고 전투가 장기전화 될 경우를 대비하여 전국에서 3,000여 명의 예비 병력을 선발한 사실을 고려하면 당시 동원된 군사의 규모는 80명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63) 육군본부, 위의 책, 318~321쪽.

함경도의 자체방어만으로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인식을 보여줌과 동시에 함경도 북도의 군사지휘체계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록 함경도 지역에는 觀察使가 兵使를 겸직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관찰사는 실질적으로 民政만 담당할 뿐 함경도 북도 지역의 軍權은 북병사가 오로지 하였다. 하지만 이럴 때 북병사의 武才가 부족하다거나 전투가 확대되어 함경도 남도 지역의 군사까지 동원될 경우에는 북병사와 남병사간의 지휘권이 충돌할 우려가 있었다. 특히 '이탕개의 난'에는 북병사와 같은 품계인 방어사까지 임명되었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이들의 지휘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도순찰사를 파견하여 함경도의 최고 군사지휘관으로 삼아 지휘권 충돌에 대한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였다. 즉 조정에서는 함경도 북도 지역의 평상시 지휘체계 대신에 비상전시체제로 지휘체계를 운영할 만큼 '이탕개의 난'에 대해서 위급하게 인식하였던 것이다.

한편, 방어사의 파견 또한 함경도의 지휘체계에 변화를 준 사례였다. 북병사와 방어사의 품계는 중2품으로 같았지만 兵使를 역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방어사로 임명한 사실과⁶⁴⁾ 京將이라는 명칭의 중요성으로 보아 이들의 지휘권이 대립할 경우에는 방어사가 북병사보다 우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북병사와 방어사 간에는 종종 서로 대립하고 명령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이다.⁶⁵⁾ 즉 함경도 북도 지역의 군사지휘관인 북병사는 도순찰사의 지휘를 받아 방어사와 함께 지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고, 방어사와 의견이 대립될 때에는 자신의 생각대로 군사들을 지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렇게 기존에 북병사가 담당했던 군사지휘권은 京將이 함경도로 파견되면서 축소되었다. 도순찰사는 함경도의 兵民을 총괄하는 최고군사지휘관이 되어 예하 장수들을 지휘하면서 북병사와 방어사를 비롯한 장수들에게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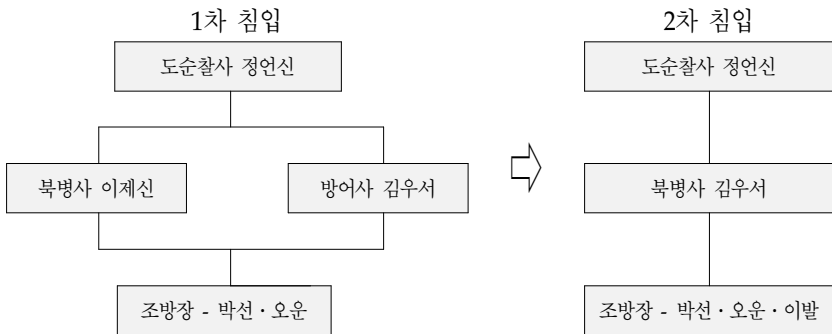
64) 서태원, 위의 논문, 2001, 49쪽. : 방어사 金禹瑞는 기존에 북병사를 역임했고, 申位 또한 선조 17년(1584)에 북병사를 역임하고 3년 뒤인 1587년에 방어사로 임명되었다.

65) 『宣祖實錄』卷112, 32年 閏4月 己卯 : “威鏡監司尹承勳密啓曰 ... 見兵使與防禦使 相協者少 爭兵多少 互相頡頏 彼此角立 情志乖隔 加之以主客異勢 號令各出 守令鎮將 無所適從.”

휘권을 적절히 위임하여 군사력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방어사는 도순찰사의 지휘를 받으면서 북병사와 함께 전투에 임하였고 조방장이나 巨鎭과 諸鎭의 장수들을 지휘하였다.

'이탕개의 난' 발발 당시 함경도 북도 지역의 군사지휘체계는 아래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尼湯介의 亂' 당시 군사지휘체계



경장과 군사들을 함경도로 파견한 뒤에도 조정에서는 서울의 군사 일부를 함경도 북도 지역으로 보내면서 부족해진 서울의 장수는 兩南의 장수 중에서 우수한 자로 대신하였다.⁶⁶⁾ 이는 전투가 예상보다 길어지자 기존에 서울과 양남 위주로 행해지던 국방정책의 중심이 함경도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조정에서는 부대의 원활한 지휘를 위해 장수의 지휘를 받으면서 군졸을 지휘하는 軍官을 선발하고자 武科를 실시하였다. 원래 무과는 매 式年試마다 28명을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국가의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인 別試를 통해 인원을 추가로 선발하기도 하였다.⁶⁷⁾ 마찬가지로 '이탕

66) 『宣祖實錄』卷17, 16年 7月 乙未 : “備忘記曰 防秋漸緊 京中將士 盡赴北方 西鄙之事 不可不慮 兩南守令邊將中 將帥可合人 遞來聚于京師.”

67) 조선전기에는 武科는 太宗 2년(1402)부터 壬辰倭亂 직전까지 190년간 213회가 실시되었다 (심승구, 「조선 후기 무과의 운영실태와 기능 -萬科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23, 조선시대사학회, 2002, 150~151쪽).

개의 난'에서도 총 5회에 걸쳐 謁聖試와 別試를 통해 모두 909명을 선발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선발된 인원은 出身軍官이라는 이름으로 함경도 북도 지역에 赴防하여 방어임무를 수행하였다.

조선후기에 萬科라고 표현되는 무과의 大量試取는 '이탕개의 난'때 처음으로 실시된 것은 아니었다. 世祖 6년(1460) 여진정벌을 위해 1,813명을 선발한 것이 대량시취의 최초이고, 乙卯倭變 이후 남방 지역의 방비를 강화하고자 200명을 선발하기도 하였다.⁶⁸⁾ 즉, 무과의 대량시취는 국방상 중요한 일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운용되었던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탕개의 난'의 경우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적변이 발발하자 전국적으로 많은 수의 군졸을 징발하였고 이에 따라 군관의 수도도 증가하여 무과의 대량시취가 이루어졌다.

한편 '이탕개의 난'때 시행된 무과의 합격자는 대체로 양반·사족층으로 그들이 지니고 있던 職役이나 家系 등은 기존의 무과 합격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⁶⁹⁾ 비록 전투과정에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서얼이나 공사천이 許通·免賤되어 무과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이들이 무과에 합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서얼과 공사천이 무과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점에서 '이탕개의 난'은 무과제도의 변화가 나타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京將을 임명하거나 파직된 무신을 敍用하고 무과를 통해 군관을 대량으로 선발한 조정은 군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군졸을 충원하기 시작하였다. 土兵과 赴防軍만으로 이루어진 함경도 북도 지역의 병력만으로 번호의 대규모 침입을 방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조정은 우선 무과 初試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부정을 저질러 징발대상에서 제외되자 이들을 모두 전투 지역으로 赴防시켰다.⁷⁰⁾ 이어서 弓矢에 능력이 있는 자를 추가로 선발하고⁷¹⁾

68) 『明宗實錄』卷20, 11年 2月 己酉.

69) 심승구, 위의 논문, 2002, 86쪽.

70) 『宣祖實錄』卷17, 16年 3月 丁亥 : 『宣祖實錄』卷17, 16年 4月 壬子.

71) 『宣祖實錄』卷17, 16年 5月 丁未.

서울과 가까운 경기와 漕運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出身과 身分을 구분하지 않고 3,000명의 예비 병력을 선발하였다.⁷²⁾

또한, 16세기에 전국적으로 일어난 代立과 放軍收布 등으로 군역체제가 문란해지고 軍額이 급감하던 상황에서 조정은 公私賤의 군역 편입을 시도하였다. 즉, 安邊 이북에 거주하는 私奴를 함경도로 부방시키고 下三道의 公賤으로 하여금 이들의 빈자리를 채워주었던 것이다.⁷³⁾ 이렇게 전투에 임하기 위해 신분을 구분하지 않고 軍役의 대상이 아니었던 공사전을 군사로 선발했던 사실을 통해 16세기에는 이미 조선 전기의 군사동원체제였던 良人皆兵制가 상당부분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봉건적 신분질서 체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던 공사전의 군역 편입은 '이탕개의 난' 이전에 이미 시행된 적이 있었다.⁷⁴⁾ 하지만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천인의 군역 편입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이나 私賤 중 일부만 군사로 편입시키자는 의견 등이 분분하였다. 즉 공사전의 군역 편입 문제는 지배층의 입장에서 국가가 위기에 처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16세기 후반의 조선은 군역의 부족으로 신분과 직역을 매개로 하던 番上체제가 붕괴된 상태였고 이로 인해 군사가 아닌 계층까지 전투에 동원되던 制勝方略이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군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집권층이 더 이상 공사전의 군역 편입을 반대할 수 없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었다. 이에 私賤이 군역에 편입되면 奴主에게 그에 대한 보상책을 지급해 주면서 지배층의 반대를 무마하는 방법으로 절충되었다. 즉, 조정에 서도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양인개병제에 집착하지 않고

72) 『宣祖實錄』 卷17, 16年 6月 辛酉.

73) 『宣祖實錄』 卷17, 16年 2月 癸巳: “安邊以北私奴丁壯 悉發爲兵 分番防戍北道 其代以下三道公賤充給.”

74) 世祖代에는 '李施愛의 亂' 당시 軍糧과 軍器를 수송할 목적으로 공사전의 군역편입이 실시되었으며, 中宗代에는 吉州 이북의 內需司 노비와 공사전이 함경도 防戍에 강제로 동원되었으며, 明宗代에도 을묘왜변때 시행된 적이 있었다(이홍두, 『朝鮮時代 身分變動 研究-賤人의 身分上昇을 중심으로-』, 혜안, 1999, 113~122쪽).

기존과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인지했던 것이다.

한편, 군사들이 전투에서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먹는 것이 충분히 보장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은 전염병의 유행과 가뭄이나 水災와 같은 자연재해가 매년 발생하여 굶어 죽는 사람이 발생할 정도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다. 또한, 국가재정의 경상비와 예비비가 부족하고 軍資監에 비축되어 있는 軍資監穀 역시 대폭적으로 감소된 상황이었다.⁷⁵⁾ 따라서 조선전기에 실시되었던 평안도나 함경도 남도 지역의 田稅를 함경도 북도 지역으로 보충하거나 혹은 군자감곡과 하삼도의 군량미를 함경도 지역으로 漕運하는 방법⁷⁶⁾ 또한,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이탕개의 난'이 발발하자 우선적으로 6鎭과 甲山 지역에 採銀敬差官을 파견하여 銀을 채취한 후 賣買를 통해 군량미를 확보하였다.⁷⁷⁾ 당시까지 銀은 명나라나 일본과의 무역에 필수적인 상품이자 결제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使行使臣이나 通事들에 의해 은이 명나라로 유출될 경우에 명나라에서 보다 많은 은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採銀은 조정이 보유한 銀이 부족할 경우를 제외하면 가능한 억제되고 있었다.

더구나 중종 3년(1508) 野人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함경도 지역에 官營採銀을 통해 군량미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이마저도 위와 같은 이유로 시행되지 않았다.⁷⁸⁾ 또한, 중종 10년(1515) 야인의 침입 우려가 있자 조정에서는 富商大賈들에게 民營採銀을 허용해 주면서 그 대가로 함경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곡식을 매매하여 군량미를 바치도록 하였다.⁷⁹⁾ 하지만 부상대고들은 조정의 의도와는 달리 함경도 지역에서 곡식을 매매하여 다시 함경도로 납부하였고, 이에 함경도 지역의 곡식이 줄어들자 조정에서는

75) 16세기 국가경상비와 예비비의 변동추이는 김성우,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72~78쪽 참고 ; 태종대부터 명종대까지의 軍資監穀의 변동은 김용곤, 「朝鮮前期 軍糧米의 確保와 運送」, 『한국사론』 7, 국사편찬위원회, 1980, 303~305쪽 참고.

76) 김용곤, 위의 논문, 1980, 286~299쪽.

77) 『宣祖實錄』 卷17, 16年 2月 癸巳 ; 『宣祖實錄』 卷17, 16年 4月 戊午.

78) 『中宗實錄』 卷7, 3年 11月 壬寅.

79) 유승주, 위의 책, 1993, 136~141쪽.

民營採銀을 이듬해에 폐지하였다.⁸⁰⁾

이렇듯 은의 매매를 통한 군량미 비축은 각종 부작용의 우려로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탕개의 난'이 발발하자 조정에서는 군량미의 확보가 다른 어떠한 고려 요소보다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에 선조가 먼저 採銀을 제안하였고 제한된 지역에서 폐단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敬差官을 파견하여 군량미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또한, 조정에서는 조정의 관리나 종친들에게는 1石을, 지방의 수령들에게는 해당 지방에 예비로 비축해둔 耗穀 2石을 함경도 安邊 지역에 바치도록 하였다.⁸¹⁾ 그리고 屯田判官을 임명하여 함경도 지역에 둔전을 경영하도록 하거나 조정에 비축되어 있는 闕軍價布와 奴婢身貢 등을 米穀으로 교환하여 군량미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한편 위의 군량마련 대책 이외에도 조정에서는 納粟策을 실시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공사천의 군역 편입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신분질서 체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주요 대상은 武才가 부족한 庶孽과 公私賤이었다. 납속책의 내용은 이들이 함경도 지역에 일정 양의 곡식을 납부하면 赴防을 담당했던 서얼·공사천과 마찬가지로 仕路를 허통해주거나 免賤시켜 주는 혜택을 주는 것이었다. 공사천의 納粟免賤은 世祖代를 시작으로⁸²⁾ 成宗代 납속한 천민에게 그 아들을 면천 시켜준 사례가 있었으며⁸³⁾ 明宗代에도 흥년으로 인한 백성의 구휼을 목적으로 일부 실시된 적이 있었다.⁸⁴⁾ 이러한 납속면천은 경제력 있는 공사천이 합법적으로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였다.

공사천의 납속면천이 조선전기에 일부 시행되고 있었던 반면에 서얼의 納粟許通은 '이탕개의 난'때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서얼허통 논의는 兵曹의 건의로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자원해서 3년간 복도 지역 방어를 담당한

80) 『中宗實錄』 卷26, 11年 9月 己卯.

81) 『宣祖實錄』 卷17, 16年 5月 甲午.

82) '이시애의 난'때 공사천의 납속면천 기준은 최초 50石이었지만(『世祖實錄』 卷43, 13年 7月 丁卯) 納粟價가 높아 응모자가 없자 6石으로 낮추었다(『世祖實錄』 卷43, 13年 7月 癸巳).

83) 문수홍, 「朝鮮時代 納粟制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36~39쪽.

84) 『明宗實錄』 卷15, 8年 12月 癸酉.

서얼들을 허통시키고자 하였으나 兩司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⁸⁵⁾ 이후 병조판서 李珣가 군사와 식량의 부족이 계속되자 전에 兵曹에서 제기했던 내용에 추가하여 무재가 없는 서얼에게도 일정량의 곡식을 납속하면 허통시키자고 건의하였고 선조는 바로 시행하였다.⁸⁶⁾ 물론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三司는 법을 훼손하고 지배질서의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반대의견을 표명했으나⁸⁷⁾ 선조의 결심을 꺾지는 못하였다.⁸⁸⁾

최초 서얼의 납속허통 기준은 쌀 80石 정도였으나 이후 그 기준은 완화되었다.⁸⁹⁾ 하지만 서얼허통을 위한 납속의 실시로 妾子를 위해 戰馬를 팔거나⁹⁰⁾ 官穀을 훔치는 경우가 발생하는가 하면⁹¹⁾ 군량미가 개인에 의해 매매되는 폐단이 발생하기도 하였다.⁹²⁾ 그럼에도 납속의 기준이 점차 완화되어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되고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아 군량조달의 문제는 일정 부분 해결되었다고 생각한다.

군사들이 전투를 하는데 있어 갖추어야 할 요소로는 군량 이외에 무기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조선은 '이탕개의 난'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북방야인과 왜구에 의한 침입을 많이 받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화기의 제작이 이루어졌다. 특히 撫恤政策을 실시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던 북방야인과 달리 왜구의 경우에는 戰船에 大型銃筒을 설치하여 그

85) 『宣祖實錄』 卷17, 16年 2月 乙未.

86) 『宣祖實錄』 卷17, 16年 4月 乙丑 ; 『宣祖修正實錄』 卷17, 16年 4月 壬子.

87) 『宣祖實錄』 卷17, 16年 4月 丁丑·5月 壬午·7月 庚子.

88) 이러한 선조의 결정에는 이 시기가 봉당이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서인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李珣가 제시한 여러 가지 대응책 등을 동인이 반대한 것으로 생각한 부분도 일정부분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는 바로 이어서 동인의 중진이었다던 3명(大司諫 宋應漚, 都承旨 朴謹元, 典翰 許筠)을 귀양 보낸 것(癸未三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89) 경상도 月城 지방에 살던 學生 李浚이 稻米 80石을 바치고 자손 모두 許通仕路의 혜택을 받았다(『慶北地方古文書集成』 雜文書774, 納粟許通牒旨) ; 이후 납속의 기준을 10石으로 낮추자는 상소에 선조가 기뻐한 내용과(『宣祖實錄』 卷17, 16年 12月 己未) 임진왜란 당시 15石에 서얼을 허통시켜준 사실을 고려하면(『宣祖實錄』 卷35, 26年 2月 辛丑), 납속가는 기존의 80石보다 상당히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90) 『宣祖實錄』 卷17, 16年 11月 丙戌.

91) 『宣祖實錄』 卷21, 20年 8月 己巳.

92) 『大東野乘』 卷72, 「滄溪記聞」

들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대형화기 위주로 개발되어 왔다. 하지만, 기동력이 뛰어난 번호에 대항하기 위해 조선에서는 대형화기보다는 군사들이 직접 휴대하며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형화기가 필요하였고 이는 전투가 발발하기 전 慶尙兵使였던 金堉가 개발한 휴대용 小火器인 勝字銃筒으로 해결되었다. 특히 화기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번호에게 조선의 화기는 유효하게 작용하였다.⁹³⁾

이에 선조는 승자총통의 추가제조를 위해 각 사찰에 있는 鐘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물론 을묘왜변 당시에도 대형총통의 제조를 위해 사찰의 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명종이 이에 반대하자 비변사와 장수들은 개인적인 판단으로 사찰의 기물을 이용하여 대형총통을 제조하였다.⁹⁴⁾ 하지만 '이탕개의 난'에는 선조가 다른 어떠한 요인보다 국방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견지하였기 때문에 종을 이용한 승자총통의 추가제조는 쉽게 이루어졌다.⁹⁵⁾ 여기에 더해 기존에 제조된 승자총통이 쉽게 파열되는 사례가 빈발하자 무쇠 대신에 正鐵을 사용하도록 하고 鐵穴을 조정하여 성능이 개선된 승자총통이 추가로 제조되었다.⁹⁶⁾ 그리고 이후 승자총통은 북변지역에 배치되어 번호의 침입을 방어하는데 일조하였다.⁹⁷⁾

한편, 조정에서는 전투력의 핵심을 이루는 騎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雙馬 중에서 卜馬를 혁파시키고 전투가 종료된 이후에는 戰馬마저 혁파시켰다.⁹⁸⁾ 또한, 말의 품질이 기존보다 저하되자⁹⁹⁾ 戰馬의 확보는 더욱 어렵

93) 『芝峯類說』卷3, 「兵政部」兵器：“先王朝 有火砲匠池壽 慶源陷城時 被擄胡中 胡人使習放而觀之 壽故令觀者聚於一邊 以火砲中殺之 胡人怒而支解.”

94) 『明宗實錄』卷19, 10年 7月 甲午.

95) 『大東野乘』卷24, 「癸甲日錄」.

96) 허선도, 위의 책, 1994, 2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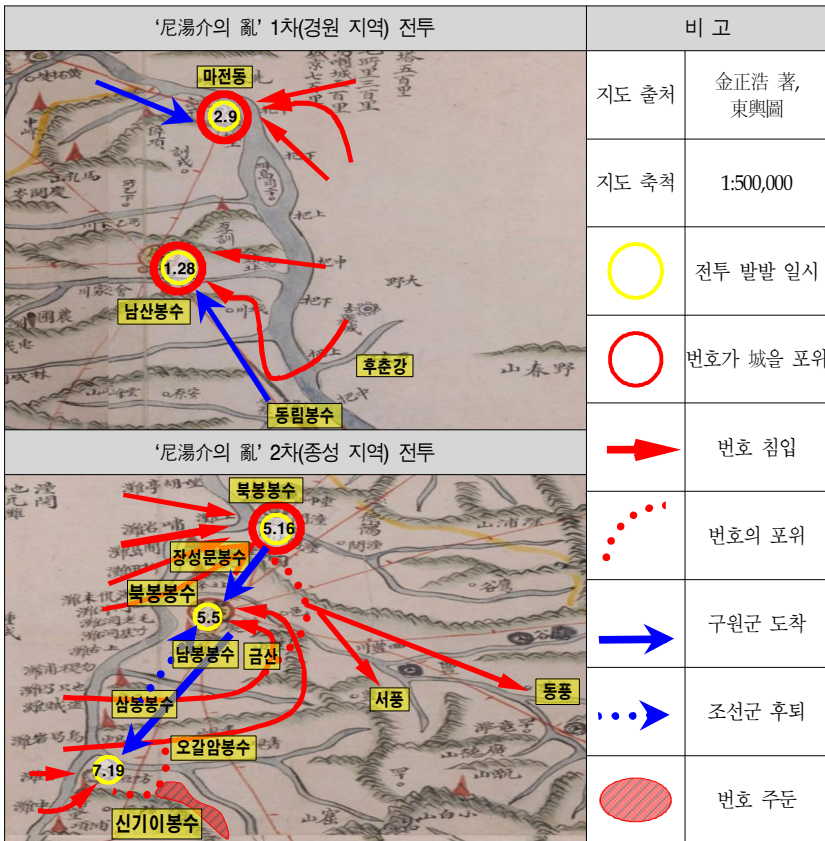
97) 『制勝方略』卷2, 「軍務29條」10條：“禦敵最關者 莫如勝字銃筒 而邊將等不勸教誨 生疎者甚多 自今以後年四十以下十五以上 無遺抄擇 常川教誨以備緩急之用爲乎矣.”

98) 『光海君日記』卷106, 8年 8月 己亥：“兵曹啓曰 ... 查得祖宗舊制 所謂正兵 卽騎兵也 上番之初 點視騎馬與卜馬 ... 往在癸末年 曹判書臣李珥請罷卜馬 軍士則喜悅 ... 亂後竝與騎馬而廢之.”

99) 『星湖僿說』卷4, 「萬物門」馬政：“古者設牧於山峽 高燥之地 馬所以剛勇 今必在海島中 粟基之弱劣.”

게 되었고, 조정에서는 목장에서 기르던 말을 군사들에게 직접 나눠주어 전마로 기르게 하거나 혹은 唐馬나 胡馬를 무역해서 군사들에게 지급해 주었다.¹⁰⁰⁾

〈그림 3〉 '尼湯介의 亂' 전투지형도



이러한 사실은 군사들이 전투를 하기 위해 자비로 준비해야 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일정부분 보조해준 것으로 군사들이 전투에 보다 집중할

100) 『宣祖實錄』卷17, 16年 2月 戊戌: “兵曹判書李珣啓曰 ... 至於廣質唐馬胡馬 亦以此法 分授武士 則業武者不患無馬 而國有緩急之資矣.”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변호의 침입을 받은 조정은 함경도 북도 지역에 최초로 北兵使보다 우위에 있는 京將을 파견함으로써 북병사를 정점으로 하는 함경도 북도의 지휘체계에 변화를 주었다. 그리고 기존에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폐단이 우려되어 부분적 혹은 일시적으로 시행되었던 納粟策이나 은의 매매를 재개하면서 부족한 군량을 보충하였다. 또한, 군사들이 각자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戰馬를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방법 등, 조정에서는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대응책 등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기존에 수차례 발생하였던 여진의 침입때 실시하였던 대책만으로는 전투에 승리할 수 없다는 조정의 위기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5. 맺음말

세종 31년(1449) 富寧을 마지막으로 6鎭 개척을 완료한 조선은 함경도 전역을 영토로 확보하였다. 함경도 북도 지역에는 조선에 우호적인 藩胡도 존재한 반면에 항시 위협이 될 수 있는 여진 또한, 대규모로 거주하였다. 이에 조선은 변호들을 활용해 적대적인 여진의 침입을 억제하며 방어하였고, 武才가 뛰어난 자를 함경도 지역의 邊將이나 수령으로 임명하여 변방을 방어하는데 노력하였다. 그러나 여진간의 세력다툼과 식량문제, 조선의 태도변화 등을 이유로 조선의 변호에 대한 慰撫政策은 실패로 돌아갔으며, 변호는 선조 16년(1583) 조선을 침입하는 '尼湯介의 亂'을 일으켰다.

북병사의 보고로 조선전기에 발발했던 여진의 침입과 그 규모가 다음을 인식한 조정은 처음으로 함경도 북도 지역에 北兵使보다 품계가 높은 都巡察使와 북병사와 동급인 防禦使를 파견하였다. 특히 도순찰사의 파견은 기존에 북병사를 중심으로 하는 함경도 북도 지역의 군사지휘체계에 변화를 준 것으로 북병사와 방어사 그리고 남병사간의 지휘체계를 일원화시키고

군사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 한 조치였다.

조선은 변호와 전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시행하며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부족한 군사를 충원하기 위해 무재가 있는 庶孽과 公私賤을 군역자원으로 편입시켰고, 군량미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 제한하여 은의 매매를 허용하였다. 그리고 서얼과 공사천을 대상으로 許通과 免賤을 조건으로 納粟制를 시행하였다. 또한, 騎兵이 자비로 준비해야 되는 卜馬를 혁파함으로써 군사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일정부분 덜어주기도 하였다. 즉 조선에서는 군사들이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를 시도하였고, 이러한 노력은 효과를 발휘해 '이탕개의 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이러한 대응책은 9년 뒤인 임진왜란 발발시에도 군사와 군량 부분에서 유사하게 진행되었다.¹⁰¹⁾

하지만 함경도 북도 지역을 방어하는 조선군의 규모와 지형요인, 그리고 변호들의 행동과 戰況에 대한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 사료에 기록되어 있는 변호의 침입규모는 재고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탕개의 난'에서 조정이 느꼈던 위기의식과 대응책 등은 조선 전기에 여러 차례 있어 왔던 여진의 침입과 같은 부류로 분리하기에는 다소 모순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탕개의 난'은 조선 전기 여진의 침입 중에서 지배층이 과거의 제도 등을 바꾸어 대처해야 할 정도의 커다란 침입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탕개의 난'이 종료된 이후에도 변호는 임진왜란 발발 이전까지 함경도 북도 지역을 11회 더 침입하였다.¹⁰²⁾ 하지만, 조선에서는 지속되던 변호의 침입과 일본이 침입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였으나 이에 대한 군사력 강화 부분은 기존의 대책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조선 전기에 백 여회가 넘는 외침에서 승리하였던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기존의 틀 이상의 군사력 강화를 생각하지 못한 점과¹⁰³⁾ 代立·放軍收布 등 군역제의

101) 송우혜, 위의 논문, 2005, 312쪽.

102) 『制勝方略』卷1·2, 「列鎮防禦」

103) 조선의 군사력 강화가 진전되지 못했던 이유는 윤호량, 「宣祖 16년(1583) '尼湯介의 亂」

문란으로 실전에 필요한 병력이 매우 적고 미약한 군사력을 보유한 조선의 구조적인 모순이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¹⁰⁴⁾

이 글은 기존에 주목받지 못했던 '이탕개의 난'에 대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재구성과 조선의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였다. 하지만, 사료의 선택에 있어 청이나 여진의 것을 살펴보지 못하고 조선의 사료에 의존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추후 관련근거를 보다 천착(穿鑿)하여 극복하고자 한다.

(원고투고일 : 2011. 12. 25, 심사수정일 : 2012. 2. 10, 게재확정일 : 2012. 2. 21)

주제어 : 藩胡, 尼湯介, 制勝方略, 鎭管體制, 局地戰, 京將, 武科, 採銀, 納粟策, 勝字銃筒

과 조선의 군사전략」,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45~47쪽 참고.

104) 윤용출, 「壬辰倭亂 시기 軍役制의 동요와 개편」, 『역사와 세계』 13, 효원사학회, 1989, 72~80쪽.

<ABSTRACT>

In the 16th year of King *Sunjo*, *The Rebellion of Tang-Gae Ni* and Reaction of *Joseon*

Yoon, Ho-lyang

Yeojin, which was closely located to *Joseon* across *Tumen* River, was always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So *Joseon* took advantage of friendly force *Bunho* (a local branch of *Yeojin*) as a bumper of *Joseon*'s national defense by giving them a government service, or land and food. But at the end of 16th century, Pacification Policy of *Joseon* to *Bunho* (as written above) gradually lost its function and finally total invasion of *Bunho*, who was friendly to *Joseon* before, called *The Rebellion of Tang-Gae Ni* occurred in the 16th year of King *Sunjo* (the year of 1583).

Hamgyeong Province, where the rebellion was took place, had peculiar defense system due to geographical factor: i.e. *Tumen* River, narrow road, wide defense area, and small military scale. So Military-Divide Policy of *Jeseungbangryak*, the system protests *Yeojin*'s invasion in advance, was carried out. It was a method of dispatching closely located Military Camp (today's GOP) or reserve forces to the place where the combat bursted and additional military forces were needed. This system was totally different from *Jingwan* system in southern area that strengthens local defense and restricts commanders' right to support other region at his opinion.

Key Words : *Bunho*, Tang-Gae Ni, *Jeseungbangryak*, *Jingwan* System, Local Combat, Capital Commander, The Military Service Examination, Trade of Silver, *Napsokchaek*, *Seungjachongtong*